

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5일 전기요금 4.5% 인상

-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, 주택용·전통시장용·농사용 요금 동결 -
- 산업용·일반용 고압 등 전력 다소비 부문 중심으로 요금 조정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02-2110-4660

■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.5% 인상하기로 결정함

- ①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하였음
 - 전력수급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계비상수급기간('11.12.5~ '12.2.29)이 시작되는 12월 5일자로 요금을 조정하기로 함
 - * 예비전력이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, 1월 2~3주는 100만kW 이하로 예측
- ② 그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, '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하였음
- ③ 이에 따라 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
 - * 전력증가율(05~10년) : 한국(30.6%) 일본(△1.9%) 영국(△5.1%) 프랑스(5.6%) 미국(1.7%)

1. 전기 요금 수준 조정

■ 전기요금은 12월 5일자로 평균 4.5% 인상함

- ①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87%*수준에 불과하지만,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겨울철 전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, 동계 피크시간대 요금 등 중심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함
 - * 지난 8월 1일 요금조정 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.3% 수준이었으나, LNG, 석탄,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추가 상승하여 원가회수율이 하락

■ 전기요금 종별로 차등 요금 조정을 시행하기로 함

- ① 서민부담,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, 전통시장용,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,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·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함
- ② (주택용, 전통시장용*) 서민, 영세상인 등을 고려하여 동결함
 - * '11. 8. 1일부터 전통시장 구역내 일반용 저압 소비자에 할인 혜택 제공중
- ③ (농사용)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함
- ④ (산업용, 일반용)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, 대형공장·고층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요금은 증폭 조정하고, 중소공장·상점 등에 적용되는 저압 요금은 소폭 조정함
- ⑤ (교육용, 가로등)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선도를 위해 교육용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, 가로등은 증폭 조정

구분	주목	일반			산업			교육	농사용	기타등	평균	
		저압	고압	계	저압	고압	계					
인상률(%)	-	3.9	5.0	4.5	3.9	6.6	6.5	4.5	-	6.5	4.5	
원가 회수율(%)	전	86.4	86.9	94.6	90.8	78.4	89.3	88.7	83.9	32.8	78.3	87.0
	후	86.4	90.3	99.3	94.9	81.4	95.2	94.4	87.7	32.8	83.4	90.9

2. 전기 요금 체계 조정

가.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

-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함

* 전력용량 300kW이상 소비자는 국내 전체 전력의 61% 이상을 소비

-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,000kW 이상 1만3천호 → 300kW 이상 11만1천호로 대폭 확대함

- 금번에 피크요금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,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이후에 '12. 1. 1일 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임

* '12.1월 신규적용대상 : 일반용·산업용 300~1,000kW, 교육용 1,000kW이상

- 다만,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(300kW 이상), 교육용(300~1,000kW)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

* 피크요금제 :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(피크시간), 중간부하, 경부하로 구분하여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

* 겨울철 피크시간대 10~12시, 17~20시, 22~23시

-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하고, 특히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을 높게 조정하여 피크시간대 전력 부하를 여타 시간대로 이전을 유도하기로 함

계절별 구분	하계	춘추계	동계
조정률	4.1% ↑	4.4% ↑	8.5% ↑

* 조정률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일반용, 교육용, 산업용의 평균

나. 산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

- 금번 요금 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동계수급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하여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한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

-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%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임

- 인센티브 요금은 금번 동계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향후 부하 이전 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

다. 기타

- 수도권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IDC(집적정보통신시설)가 집중 설치될 경우 수도권 전력부하 밀집도가 급증하여 추가로 송배전망을 건설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

* IDC 현황 : 수도권(34개), 비수도권(13개)

◎ 수도권 소재 IDC는 현재 적용중인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(12.1.1일 시행)

*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은 '08.1월부터 시행중이며, 일반용 대비 3% 저렴

3. 전기 요금 조정 효과

■ 지식경제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.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■ 금번 요금 조정시 서민 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요금을 동결하였으므로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, 생산자 물가 0.116%p 상승, 제조업체의 원가는 0.076%p 상승함

* 산업용, 일반용, 주택용 전기요금을 각각 1% 인상시 생산자물가 연간 0.0274%p 상승(한국은행)

* 제조업 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.17%(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, '10년)

4. 향후계획

■ 지경부 정재훈 에너지지원실장은 "지식경제부와 한전,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올 겨울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,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"라고 말했다

■ 지식경제부는 향후에도 낮은 전기요금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

해상풍력 3대 강국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- 서남해 2.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(02-2110-4911)

■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는 11.11일(금)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'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「서남해 2.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」을 발표하고, 발전회사 및 풍력설비개발사들이 참여하는 "해상풍력 추진 협약식"을 체결함

■ '19년말까지 구축 예정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, 발전사 및 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상기 종합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◎ 먼저, 지속적인 국내시장 창출로 해상풍력 산업기반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,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전 및 전력사, 시스템 및 부품기업, 연구소 등 참여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, R&D 지원 분야의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음